

오늘의 말씀묵상

본문 : 로마서 9:14-24(현대인의 성경)

1. 말씀

14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평치 않으시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5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이 원하거나 노력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야 받습니다.

17 하나님은 바로에게 "내가 너를 세운 것은 내 능력을 너에게 보여 내 이름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도록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어떤 사람은 불쌍히 여기시고 어떤 사람은 완고하게 하십니다.

19 "그렇다면 어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고 나무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라고 질문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0 그러나 우리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만들어진 물건이 그것을 만든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21 토기장이가 같은 흙으로 귀하게 쓰일 그릇과 천하게 쓰일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습니까?

22 만일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보이고 자기 능력을 알게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멸망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을 벌하시지 않고 너그럽게 참아 주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3 또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셔서 영광을 받도록 미리 준비하신 사람들에게 그분의 풍성한 영광을 알리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4 유대인 가운데서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불러내신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2. 관찰

- 본문에서 눈에 띄는 단어나 구절은 어떤 것입니까?

→ _____

- 하나님은 본문에서 어떤 분으로 나타나십니까?

→ _____

3. 메시지

- 바울이 제기하는 이의는 무엇이고(14절), 구원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 소개합니까?(15-16절)

→ _____

- 하나님의 자비와 심판으로 “알게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23절)

→ _____

-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노력과 상관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느끼나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이 내 삶의 태도나 마음가짐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 _____

- 하나님의 어떤 사람은 불쌍히 여기시고, 어떤 사람은 완고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는 어떤 생각과 감정이 떠오르나요?

→ _____

- 토기장이와 그릇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우리를 다루시는 권위와 주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 _____

- 인간으로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그럴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야 할까요?

→ _____

4. 적용

-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는 무엇입니까?

→ _____

-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고 미리 준비하신 사람들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도전은 무엇이고, 나의 삶과 관계, 선택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

5. **묵상 나눔**(아래 묵상 나눔은 함께하는교회 교인 한 분이 개인적으로 적은 묵상 글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묵상을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이나, 현재 묵상을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 참고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롬 9:14-24(하나님의 선택 원칙)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사는 특권을 부여 받았고, 그 분만이 당신의 피조물을 다스릴 권리를 소유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바로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일 충분한 기회를 주셨음에도, 바로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맞섬으로써 악을 선택하였고, 주님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며, 우리에게 우리의 운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의지가 주어졌다는 것 또한 은혜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 반역한 후에도 구속의 소망이 주어진 것은 더욱 놀라운 은혜입니다. 바로와 같은 반역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 당장 의를 행사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라도 죄를 짓도록 유혹하거나 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완악하게 하신 성경 속 전형인 바로는 반항하는 죄에 넘어졌거나 유기되는 벌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베푸는 자의 선택이고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선물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하신 남은 자들을 신실하게 구원하시지만 정죄 받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깨어지고 상처 난 토기를 가지고 새로운 작품을 구상하시는 분임을 안다면, 현재의 어려움이나 아픔이 인생 전부를 규정할 수 없음을 알고 우리는 충분히 질적으로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6. 기도